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백 재 현

#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민 성 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 년 5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백 재 현

# 인 준 서

백재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 논문 개요

자연의 지배, 경제적 풍요, 이를 통해 확장되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초기 과학기술의 지향점이었을 것이다. 이런 희망들은 20세기 초반부터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을 지배하는 더 유용한 도구들을 수없이 만들어 낸 현대문명은, 인간 스스로를 그러한 도구들의 예속물로 전락시키는 문체점을 배태하고 있었다.

본인 작품의 일관된 관심은 현대문명 속에서 소외된 인간이 그 본래 자리로 회귀해야만 한다는 사유에 기초한 것이었다. 현대문명 속의 인간상에 대한 조형화 작업은 물질문명의 돌파구가 정신문명으로의 회귀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정신적 배경, 표현 방법 등을 서술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 약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정신적 배경으로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신문명으로의 회귀라는 관점을 통해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들과 표현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 작품 설명을 위해 작품사진과 작품제작방법, 내용 등을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2
1. 작품의 정신적 배경 .....	2
2. 조형적 표현방법 .....	5
3. 작품 분석 .....	7
III. 결 론 .....	24

## 참고 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인류의 초상1, 순동캐스팅, 790×500×2050mm, 2003 .....	8
【작품2】 인류의 초상2, 순동캐스팅, 795×500×2050mm, 2003 .....	10
【작품3】 인류의 초상3, 순동캐스팅, 800×498×1995mm, 2003 .....	12
【작품4】 인류의 초상4, 순동캐스팅, 790×500×2000mm, 2003 .....	14
【작품5】 인류의 초상5, 순동캐스팅, 800×497×2000mm, 2003 .....	16
【작품6】 인류의 초상6, 순동캐스팅, 796×500×2030mm, 2003 .....	18
【작품7】 인류의 초상7, 순동캐스팅, 800×500×1998mm, 2003 .....	20
【작품8】 사유하는 거상군(인류의 초상1~7) .....	22

# I. 서론

초기 과학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건축, 의학,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매체 등 과학기술은 다방면에서 진보적 발전을 이루며 화려한 인류문명을 구축하는 듯했지만, 이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비인간화, 소외, 주체적 자아상실 등의 문제점을 낳으며 인간을 오히려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간의 자만과 속단이 자연을 지배하는 더 유용한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러한 도구들의 예속물로 전락하여 스스로를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접어든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넘어 스스로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차원에까지 이르렀다. 자연의 모든 구성원들이 복제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이미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과 스스로에게 소외되어버린 인간의 위기의식을 재인식해봄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절대필요성에 대한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인체형상들은 이런 현대문명의 궤적을 조형적으로 떠 안고 있다. 현대인의 일그러진 인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신문명으로의 회귀라는 각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신문명으로의 회귀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한 소재들의 의미와 표현방법을 조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의 정신적 배경

인간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근대적 합리주의 정신은 모든 존재를 사실적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과학의 발달은 자연현상 속에서 자연법칙을 발견하여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조종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을 바탕으로 한 서구의 근대적 가치는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인간을 위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즉 현대사회의 기계론적 자연관<sup>1)</sup>은 합리적인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이룩함으로써 고도의 발달된 물질문명을 이루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개발에 그치지 않고, 인간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무한한 물욕을 충족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유전자조작기술에 의해서 생명의 존엄성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문명의 발달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게 한 것은 서구의 인간 중심적인 지배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인류 역사상 모든 형태의 지배와 차별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의 결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하나는 이분법적 분리주의 사유체계고 다른 하나는 우열 개념이 침투한 지배 논리이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구분이 인간의 의식 일반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그리고 주체가 대상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는 그릇된 지배 논리가 합세하게 되면서, 그것은 기존의 지배 의식을 더 부추기고,

---

1) 인식론에서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인식방법을 허용하는 입장에 반대하여 과학적 인식을 최고위의 유일한 인식방법으로 삼는 입장.

더 나아가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월한 주체가 열등한 대상을 수단과 도구로 간주하여 마구잡이로 수탈한 것이 늘 문제의 씨앗이었다.

주객 분리주의와 지배 논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주체 자리를 차지한 인간종이 자연과 자연적 존재를 대상으로 자리 매김하고, 인간의 물질적 풍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함부로 수탈을 일삼았다. 지구촌의 슬한 인간이 오직 인간만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연과 동식물을 마구잡이로 약탈한 결과 자연은 자생력과 안정성, 그리고 자정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치열한 생존경쟁, 이기주의, 고립화, 분열화 등은 인간의 인간다움 그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소외, 자기분열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해 가는 기술문명의 뒤편에서 현대인은 고독과 방황 그리고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초과학기술시대가 이러한 인간의 현존적 위기상황을 구제해 주리라는 어떠한 희망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대안이 정신문명으로의 회귀라 규정할만한 권위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준거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연의 위대한 질서가 제시한 준거들이다.

자연의 질서, 그 본질이 운동과 변화라고 한다면 이는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속성은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높은 산도 언젠가는 자신을 허물어 뜨려 평원의 자유에 안기기를 꿈꾼다. 공들여 쌓아 놓은 장엄한 탑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인간의 의

지로 구축된 질서를 깨뜨리고 지면으로 내려와 편안한 자세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오래된 사원의 폐허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주춧돌이나 탑석, 신전에 외롭게 서있는 돌기둥 등을 볼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황량한 폐허가 주는 무상함에 젖겠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모습이다. 인간이 그것들을 모아 다시 쌓아 올려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유를 계속 향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이전의 질서 있는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sup>2)</sup>’을 원용하면 에너지가 모습을 바꿀 때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만 이동할 뿐 스스로 질서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류의 문명화 과정은 그 본질을 망각한 채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현상계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의 보편적 관점을 벗어난 것이다.

엔트로피의 증가를 보면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얻을 수 있다. 인간 본질에 대한 성찰은 ‘현상계의 무상함과 그 배후에 깃든 어떤 영원한 숨결을 깨달아 삶의 자유를 새롭게 자각하고 발견하는 일<sup>3)</sup>’ 일 것이다.

인간의 본질을 상실한 시대, 존재의 의미가 물성화된 현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소외의 문제란 존재론적 성찰을 위해서나, 인간사회의 비판적인 이해를 위해서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으며, 본인이 최근 2-3년에 걸쳐 제작했던 작품들도 모두 이러한 배경에 의해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엔트로피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가 관계되는 계 현상'을 설명하는 열역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물리학 용어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에너지는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법칙이다.

3) 김영기 “한국의 이해” 이화여대 출판부 1998,p.49

## 2. 조형적 표현방법

현대문명 속의 일그러진 인간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물질문명의 대안으로 정신문명을 제시하려는 예술적 시도는 수없이 이루어졌다.

본인 작품의 일관된 관심은 인간이 그 본래 자리로 회귀해야만 한다는 사유에 기초한 것이다. 현대문명 속의 인간상에 대한 조형화 작업은 물질문명의 돌파구가 오로지 정신문명으로의 회귀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는 과정이었고, 그에 대한 조형적 표현방법을 찾아내 인간상에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었다.

본인의 조각상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숙인 채, 바닥에 발을 굳게 밀착시키며 직립부동의 자세로 서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인체를 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해 조각상으로 하여금 사색적인 이미지를 표출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체를 마치 화석화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단순화시켰다. 그것은 완벽한 피부를 지향해온 클래식한 조각의 감각적인 표면처리가 아니라, 각진 모퉁이들이 튀어나온 투박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에 사용되었던 주물기법은 일반 주물제조과정인 쇳물을 부을 수 있는 틀을 이용한 왁스정밀주조나 모래주조와는 달리 점토를 캐스팅한 석고 틀 위에 직접 산소 불대를 이용하여 동선을 녹여 떨어뜨림으로써 오는 우연의 표면효과와 제조 후 가공을 생략함으로써 거친 표면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우연의 표면효과인 기포와 자연적인 크랙, 그리고 가공의 생략으로 인위적 성격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미할 수 있었으며, 가공되지 않은 투박한 느낌의 작품들을 유화가리를 이용해 한층 더 어두운 톤의 색감을 입히고, 부분 부분 질산액을 이용하여 푸른 톤으로 부식시킴으로써 인류문명이 누려온 오랜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또한 인체조각상 하나를 40-50개정도의 석고 틀로 분리시키고 동을 녹인

후 그 조각들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조각 하나 하나의 선을 살리기도 하고, 서로 엇갈리게 한 후 동판을 이용하여 면을 잡음으로써 영혼과 육체를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형상이 아닌 마치 단순히 쌓아놓은 물질의 덩어리이거나 치밀하지 않게 용접해놓은 폐품들의 집합체라는 인식이 들도록 하였다.

인체조각상을 절개된 몇 개의 덩어리로 구성함으로써 몸과 몸 사이의 경계가 상호 침투적으로 조형화 했다. 몸 자체도 단일 형상이 아니라, 문자판이나 기계 파편 같은 인공물이나 나뭇가지 등이 박혀 있는 복합적인 형상을 이룸으로써, 기계조각들이 박혀있는 인체들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생명이 아니라, 가능한 생명에 대한 이미지를 표출하도록 하였다.

온몸에 자연은 물론 문명의 파편을 두루 박고 서있는 인간상은 인류가 축적해온 그 동안의 모든 지식과 과학, 인간이 시작된 이래로 배워온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결집시키려는 시도였다. 광물질적인 몸체에 인공물과 유기체의 형상까지 모두 떠안고 있는 몸체에, 고개는 약간 숙이고 바닥을 굳게 밀착시킨 정적인 분위기를 통해 수많은 인간들의 거대한 족적을 압축해냄으로써 현대문명 속의 인간의 탐욕, 자만이나 무이성적 경향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7점의 작품은 거의 비슷한 크기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 후 파생되는 전체작품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강조는 반복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중 획일적 반복은 강한 통일성과 함께 명백하고 강조된 효과를 주며 비례·방향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강조와 조화를 수반한다.” 4) 일정한 공간에서 7점의 작품의 배열을 변화시키면서 개별작품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확장 증폭시켜 사유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

4) 최병상 “조형” 창미서관 1993,p.106

### 3.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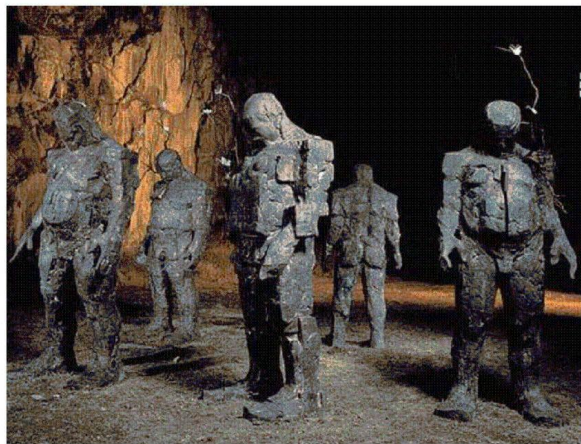
인간의 삶의 문제를 주된 작업의 테마로 삼았던 국내작가 중 류인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류인의 인체 조각은 단단한 해부학적 기초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20대 때부터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형성하였는데,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각적 특성은 작품의 비례와 구조, 조각적 볼륨감, 내적 에너지의 표출이 이루어지는 생동감, 전체적 특성들이 아울러지면서 나타나는 표현성과 그로 인한 긴장감에 있다. 작가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되, 인체의 형상을 분절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해체적 방식을 사용한다.”<sup>5)</sup>

이런 류인의 작품의 특질과 대비되는 본인의 조각상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숙인 채, 바닥에 발을 굳게 밀착시키며, 직립부동의 자세로 서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인체를 정적인 감정으로써의 표현과 조각상들로 하여금 사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함이었다. 동적인 자세는 순간적 상황을 나타냄으로써 물체의 단편적인 상황의 재현이지만, 정적인 자세는 상징적 의미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인간의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적이고 사색적인 자세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객관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견잡을 수 없이 범람해버린 물질문명의 세계 속에서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대인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체를 마치 화석화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단순화시키고, 그 인체에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가지 같은 식물의 파편이나, 기계부품 같은 문명의 파편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조각상들로 하여금 억압된 인류문명의 상징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

5) <http://neolook.net/mm01/010130.htm>



【작품1】 인류의 초상1, 순동캐스팅, 790×500×2050mm, 2003

**【작품1】 인류의 초상1 - 분열된 육체**

크 기 : 790×500×20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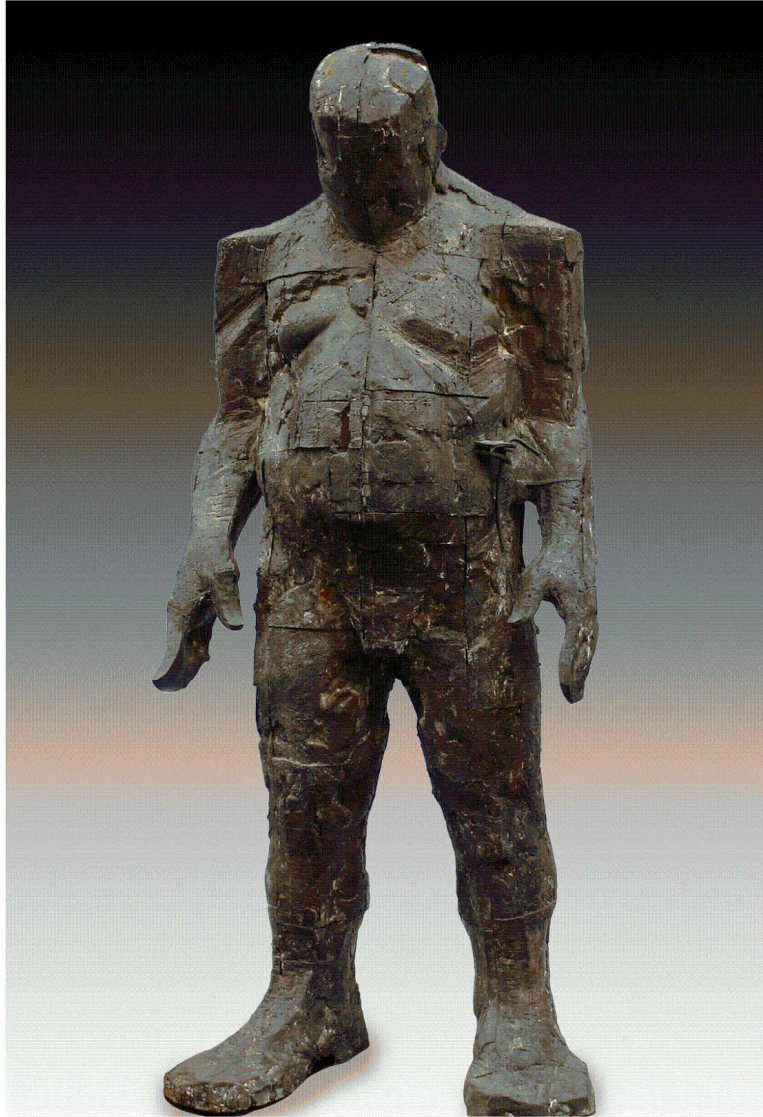
재 료 : 순동캐스팅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순동캐스팅 후 용접, 유화가리 컬러링, 오브제(나뭇가지)

이 작품은 인체의 부분 부분을 서로 엇갈리게 조립함으로써 몸 전체가 불완전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영혼이 사라진 꺾이기뿐인 분열된 육체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목에서 자라난 오래된 나뭇가지는 인간의 자연으로의 회귀를 강조하기 위한 오브제이다.

인간의 육체는 찢어서 흩어지고, 또 다른 생명이 그것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생성과 소멸에 의해 변화해 가는 자연의 원리 속에서만이 인간이 인간 삶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정체성 회복의 길임을 표현하였다.



【작품2】 인류의 초상2, 순동캐스팅, 795×495×2000mm, 2003

## 【작품2】 인류의 초상 2. -욕망의 문

크 기 : 795×495×20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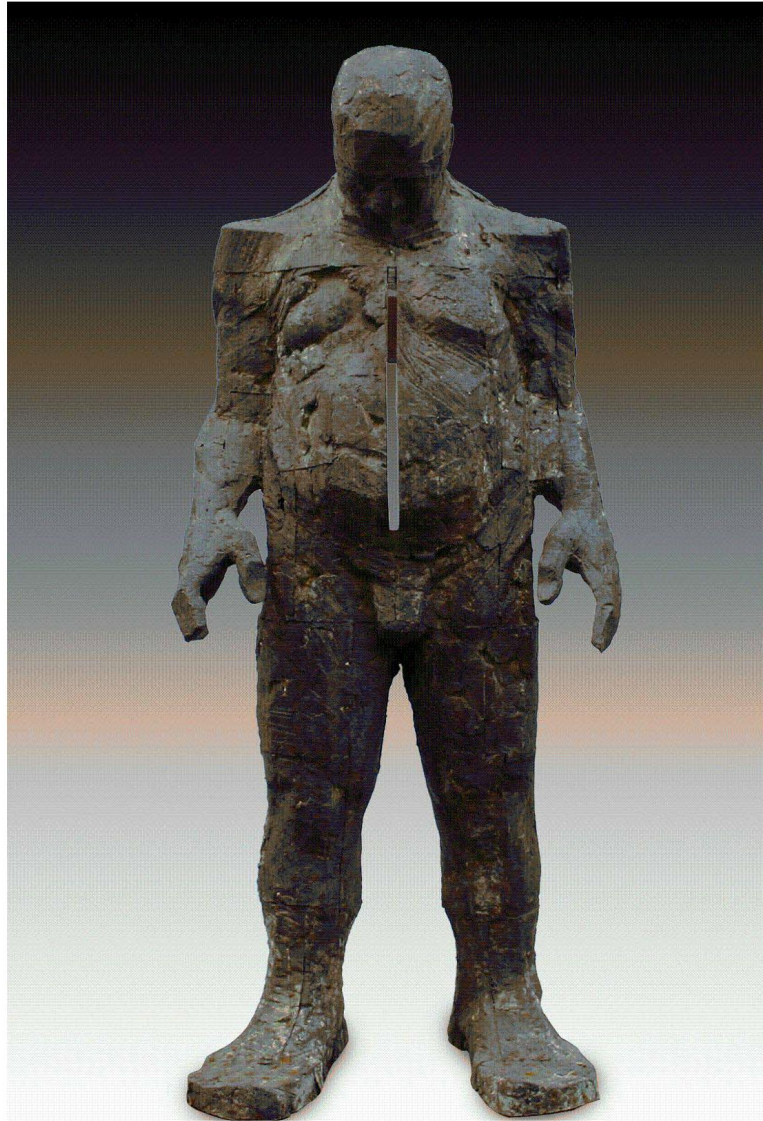
재 료 : 순동캐스팅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순동캐스팅 후 용접, 유화가리 컬러링.

본인이 제작한 7점의 조각상은 모두 비대한 육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잡한 현대문명 속에서 오랜 기간 탐욕, 경쟁, 이기심 등을 습득하여 포화상태에 이른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본 작품은 비대한 복부의 오른쪽 부위에 작은 문을 만들어 인간의 욕망을 담아두는 방을 상징하게 했다. 그리고 그 문의 고리는 완고한 자물쇠가 아닌 허술한 쇠고리를 이용하여 잠가둠으로써,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문이지만 관람자로 하여금 쉽게 고리를 빼고 문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다. 인간이 그토록 갈구해오던 욕망들이 죽은 뒤에는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가를 느끼게 해주기 위한 표현이었다.



【작품3】 인류의 초상3, 순동캐스팅, 800×498×1995mm, 2003

### 【작품3】 인류의 초상 3 -상품화된 인간

크 기 : 800×498×199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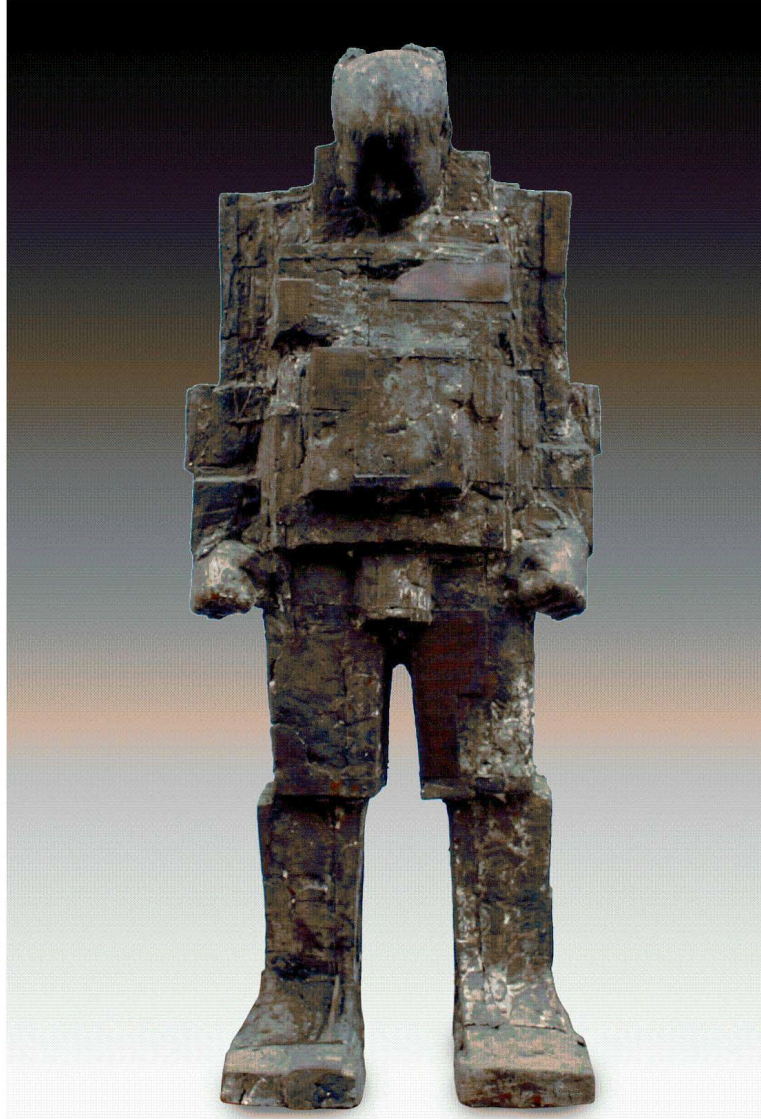
재 료 : 순동캐스팅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순동캐스팅 후 용접, 유화가리 컬러링, 질산액을 이용한 동판 부식, 오브제 (나뭇가지).

인간은 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신의 마지막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생명현상에까지 관여하게 된 것이다. 생물체의 유전자조작은 각종 질병치료 및 생명연장, 그리고 생명공학으로 식량, 에너지 충당 등의 이점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 계층의 형성이 극대화되어 인종차별, 나아가서는 인간의 상품화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작품은 명치에서 복부까지 약 40cm를 2cm의 폭으로 관통시키고, 관통된 부분에 문자가 새겨진 사각박스를 꽂아두었다. 이는 카드 단말기의 형태를 인용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카드화된 상업구조와 그 속에서 상품화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형상을 표현하고자했다.



【작품4】 인류의 초상4, 순동캐스팅, 790×500×2000mm, 2003

#### 【작품4】 인류의 초상 4 -문자를 지닌 유일한 종

크 기 : 790×500×2000mm

재 료 : 순동캐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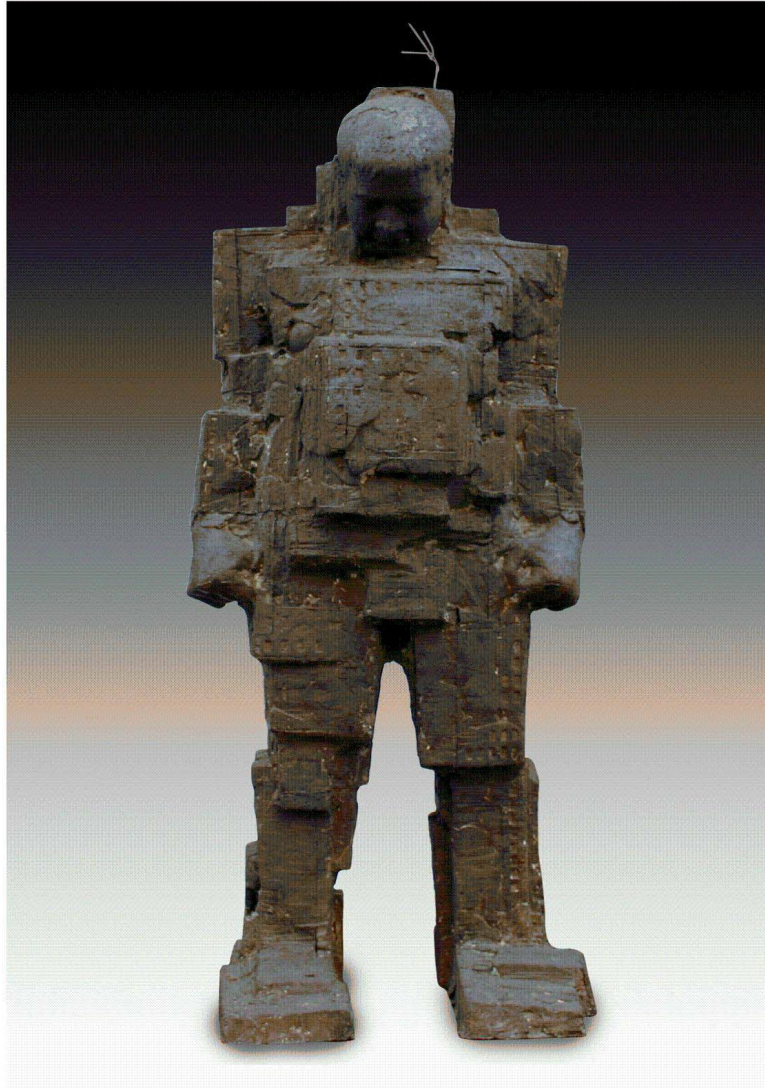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순동캐스팅 후 용접, 유화가리 컬러링, 질산액을 이용한 동판 부식.

인류가 만물의 영장임을 과시하며 여러 생물체중 가장 강할 수 있었고, 지금의 혁신적인 정보화시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원시시대부터 언어와 문자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작품은 문자를 지닌 유일한 종인 인간을 표현하고자 구석구석에 문자를 새긴 동판을 붙였다. 동판에 새긴 문자는 먼저 시트지에 문자를 새기고 그것을 동판에 붙인 후 물과 질산액이 1:1의 비율로 섞인 용액에 약 10분간(온도의 차이가 있음)을 담가두어 부식시켰다.

동판에 새겨진 문자는 현대문명의 무분별한 복잡성을 상징하기 위해 여러 문자와 다양한 기호를 사용했다.



【작품5】 인류의 초상5, 순동캐스팅, 800×497×2000mm, 2003

## 【작품5】 인류의 초상 5 -인류와 함께한 건축문화

크 기 : 800×497×2000mm

재 료 : 순동캐스팅

제작년도 :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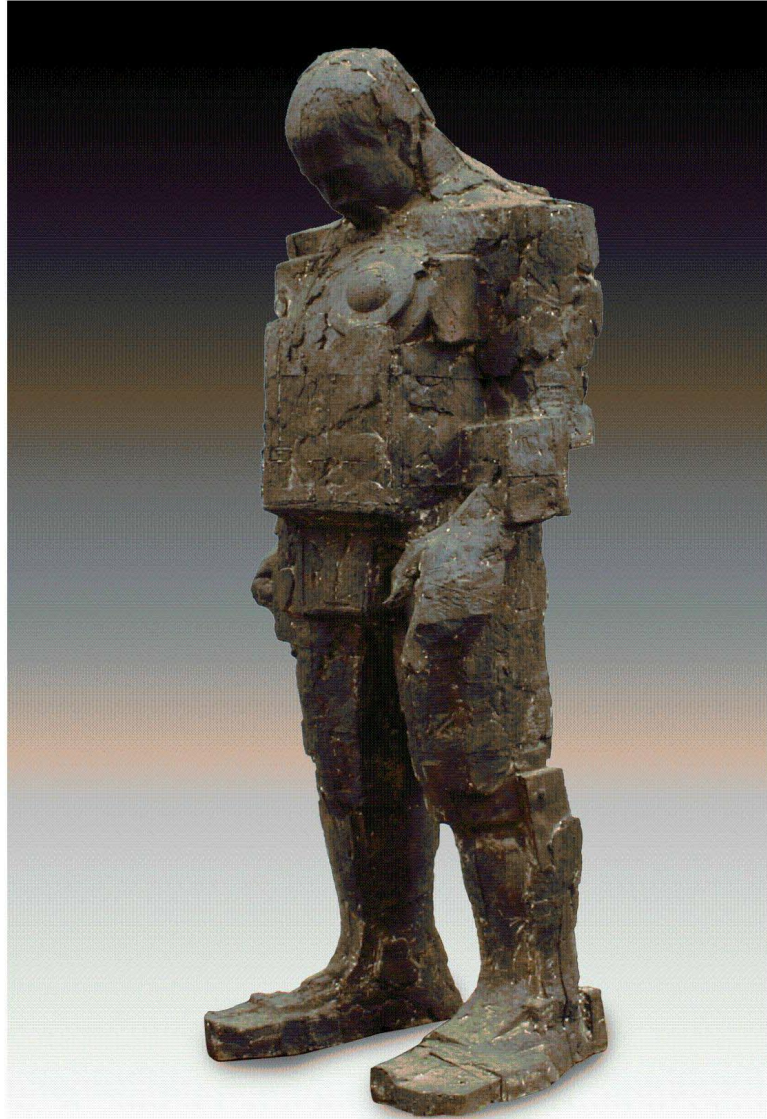
제작방법 : 순동캐스팅 후 용접, 유화가리 컬러링. 오브제 나뭇가지.

본 작품은 인간이 이룩해 낸 건축문화를 인간상에 표현하기 위해, 두상 부위와 손을 제외한 몸 전체를 건축적 이미지로 조형화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건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몸 전체를 여러 형태의 사각 박스를 쌓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고, 그 몸체에 사각형을 음각하여 거대한 빌딩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폐허된 건축물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각목을 두드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밀하지 않게 사각박스를 쌓아놓은 듯 한 형태의 점토작업을 시도했고, 조각상의 가장 위쪽에 있는 피뢰침의 형태를 일그러지도록 변형시켰다.

특히 본인이 선택한 재료기법, 즉 석고 틀 위에 직접 동을 녹임으로써 얻어지는 우연의 효과와 투박함은 폐허된 건축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절하였다.



【작품6】 인류의 초상6, 순동캐스팅, 796×500×2030mm, 2003

## 【작품6】 인류의 초상 6 -기계 문명 속의 인류

크 기 : 796×500×2030mm

재 료 : 순동캐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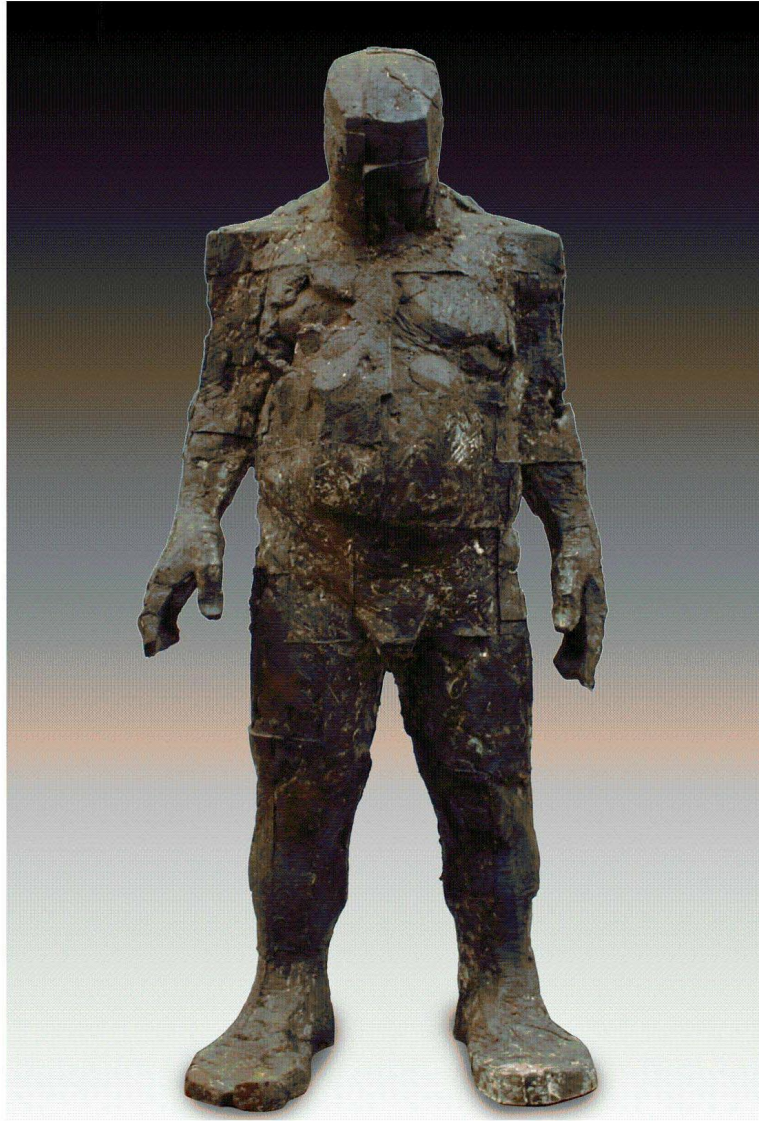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순동캐스팅 후 용접, 유화가리 컬러링. 오브제(나뭇가지).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 뒤에는 인간의 욕망, 이기심, 집단적 생존경쟁에 의한 전쟁이라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된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들 간의 내분이었다.

1,2차 세계대전 중에 발전한 새로운 기술은 전후 세계를 변화시켰고, 원자폭탄의 발명으로 인간은 핵의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폭탄을 개발하여 생물학전에 사용하려 한다.

본 작품은 이처럼 기계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그것들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는 인간을, 기계부속품 등의 오브제를 가슴과 무릎 부위에 부착시켜 기계적인 인간 또는 기계문명 속의 인류를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7】 인류의 초상7, 순동캐스팅, 800×500×1998mm, 2003

**【작품7】 인류의 초상 7 -긴 잠에 빠진 인류**

크 기 : 800×500×998mm

재 료 : 순동캐스팅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순동캐스팅 후 용접, 유화가리 컬러링.

앞서 제작한 여섯 작품들은 모두 여러 오브제를 이용하여 인류가 남긴 문화와 그것들의 잔해를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누려왔던 문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본 작품은 어떠한 오브제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긴 잠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투박한 표면처리와 모난 형태를 이용하여 마치 화석화된 형상의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긴 잠에 빠진 인간’이란 비관적 입장에서는 종말을 맞이한 인간을 의미하지만 희망적으로 보자면 인간이 그 동안 범한 오류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물질문명의 돌파구가 오로지 정신문명으로의 회귀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8】 사유하는 거상군: 인류의 초상 무덤(인류의 초상1~7), 2003

**【작품8】 사유하는 거상군: 인류의 초상-무덤(인류의 초상1~7)**

크 기 : 9000×3000×2050mm

재 료 : 순동캐스팅, 마천석

제작년도 : 2003년

7점의 작품은 모두 등신상보다 큰 스케일이며 유사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유하는 거상군: 인류의 초상-무덤”이라는 작품 주제에 맞게 일정한 공간에 설치 후 파생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7점의 작품을 하나의 군으로 형성해 개별적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인류문명의 궤적이 서로를 확장 증폭시켜, “인류의 초상-무덤”에 부합하는 전체로서의 작품을 강조하고 승고미를 띤 사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작업을 통해 7점의 인간상을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여, 반복과 다른 형식의 배열에서 오는 극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 Ⅲ. 결 론

본인의 작품에 일관된 관심은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이다. 이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 그 본래 자리로 회귀해야만 한다는 사유에 기초한 것이다. 현대문명 속의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조형화 작업은 물질문명의 돌파구가 오로지 정신문명으로의 회귀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조형적 표현방법을 찾아내 인간상에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었다.

본인의 작품 ‘인류의 초상’ 7점의 인간상은 모두 매끄러운 표면처리가 아니라, 각진 모퉁이들이 튀어나온 투박한 형태들로 표현하였다. 인간상들은 절개된 여러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었으며, 몸과 세계사이의 경계를 상호 침투적으로 표현하였다. 몸 전체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문자판이나 기계 파편 같은 인공물이나 나뭇가지 등이 박혀 있는 복합적인 형상을 이룬다. 광물 질적인 육체에 인공물과 유기체의 형상까지 모두 떠안고 있는 몸체는 그 동안의 수많은 인간들의 족적을 압축하기 위한 조형적 표현이었다.

7점의 작품은 등신대 보다 큰 스케일이며, 정적이고 사색적인 자세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객관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견잡을 수 없이 범람해버린 물질문명의 세계 속에서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대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정한 공간에 설치 후 파생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앞으로도 본인은 지금과 같이 현대문명 속의 인간상에 대한 비판적 작품 성향을 표현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자연의 조화를 통해 인간 그 본래 자리로의 회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표현의 대상에 있어서는 그 범주를 인체에서 다른 사물이나 형태로 확장시키고, 표현방법의 형식과 폭을 넓혀 나가며 더욱 발전된 조형언어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최병상 “조형” 창미서관 1996
2.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3. 이광미 “시각 예술의 이해” 지구문화사.1981
4. 김기영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대 출판부 1998
5. 프리초프 카프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이성범 역,  
범양사.1998
6.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문명화 과정” 박미애 역, 한길사.1999
7. 오미겐타로 “조형심리” 권민 역, 동국출판사. 1991

# ABSTRACT

## A Study on Alienated Human Images in the Modern Civilization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Own Works -

baek, jae-hyun

Department of Sculpture of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early science and technology must have targeted the mastery over the nature, economic abundance and expanded human freedom and happiness through them. These hopes have misled people to the promise of the brighter future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the modern civilization which has created countless useful tools to control the nature has conceived a problem that human beings fall slaves to those tools.

The consistent concern in the researcher's works is based upon the thought that alienated human beings in the modern civilization should return to their original place. All the representations of human images in the modern civilization are the attempts to remind us that the only outlet of the materials civilization is to return to the mental civilization.

This thesis, which addresses the mental backgrounds and expression methods in the researcher's works,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part which lists the research purpose and its methods.

Chapter 2, the subjects and expression methods are explained which are adopted to show the point of view that the return to the mental civilization is the alternative to the alienated human images in the modern civilization with the backgrounds of the works. In addition, to explain individual works, photographs are presented along with their production methods and contents.

Chapter 3 is the conclusion part where the overall thesis is summarized with comments on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researcher's' creative works.